

재일 코리안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공익 재단법인 재일 조선 학생 지원회의 세 번째 임기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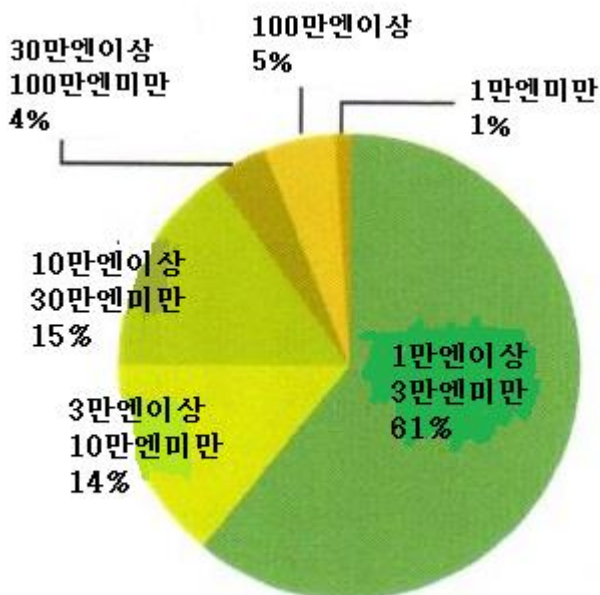
2013 년도는 도쿄 한국 학교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지급

재일 조선 학생 지원회 (이하 지원회)는 재일 코리안 학생의 수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와 일본의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설립되었다. 2012년 2월에는 내각부에서 ‘공익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아 동년 6월에는 새로운 기부 세금 제도에 근거하는 ‘세액 공제’ 적용 법인으로서의 인증도 받았다.

현재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보호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지방 자치체에 의한 각종 보조금, 교부금의 잇따른 정지와 삭감으로 민족 학교에 아이를 다니게 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곤궁하고, 그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하여 이러한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지원회에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2기 동안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50명에게 총 1,332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2013년 11월 22일 선정위원회를, 같은 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조선 고등학교, 도쿄 한국 학교 고교생 35명을 포함한 51명을 장학생으로 결정하고 총 972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원회의 모든 사업은 재일 코리안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풍부한 국제성을 가진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학 사업과 함께 조일 학생들의 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대상을 공모하여 지원 활동의 폭을 넓혀 간다. 또한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도 세계와 일본, 재일 사회에서 활약하는 잠재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선수와 예술가 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모금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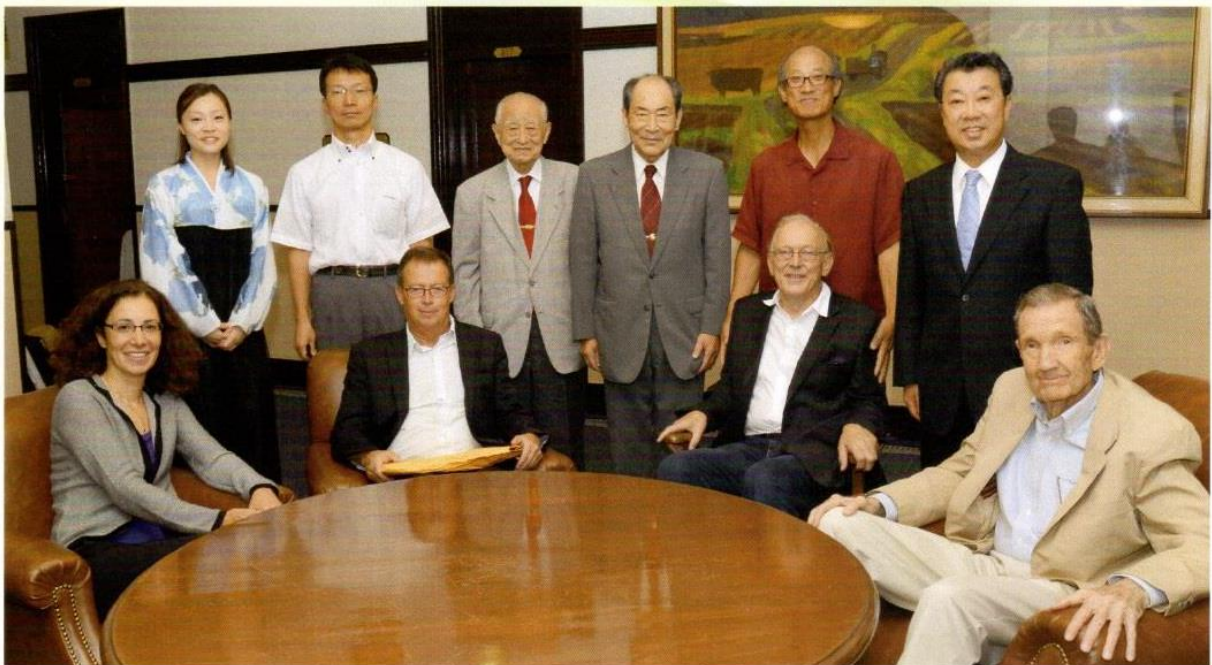


<그림> 기부금 비율

2011, 2012 년도의 2 년간 개인, 법인, 단체, 모임 이름으로 전해진 197 건의 기부 내역은 좌측의 그림과 같다. 한 건 당 3 만엔 이하의 기부금이 대부분이며, 10 만 엔 미만의 기부금이 전체의 약 80% 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소수의 고액 기부자의 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저변이 넓은, 많은 작은 양심과 선의에 의해 지원회의 사업이 유지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 년도는 모금 목표를 1,400 만 엔으로 하고 있다.

세계 코리안 동포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오늘 제일 코리안 학생들의 지원의 고리는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2013 년 8 월 2 일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 귀빈들과 지원회 임원들이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점석 전무 이사는 지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경위, 활동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클라크 씨는 제일 코리안들이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국땅에서도 스스로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온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의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드문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 자신도 뜻을 같이 하고 향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원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동석한 회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4명이 각자 의사 표시로 서명을 했다.



마라 바헤이든 힐리어드
국제 인권 변호사

Mara Verheijden Hilliard

브라이언 베커
"반전 반인권 차별 행동"
(ANSWER) 사무총장

Brian Becker

미셸 쇼스도프스키
캐나다 오타와대학 명예교수

Michelle Soudovsky

윌리엄 램지 클라크
미국 제66대 법무장관

William Ramsey Clark

더욱 노력과 협력을

올해도 지원회에 보내져 온 서류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보호자들의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 또한 일본 학생 지원기구와 조선장학회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더 빨리 지원 재단을 시작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에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

올해는 응모가 많아 신청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서류만을 보면 다 장학금을 지급해서 마땅한 대상들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분발하여 널리 협력을 받으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우리 학생'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하겠다.

수급자의 소리

백종덕

센슈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나는 대학원에서 환경경영학을 전공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등 세계적인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장학금을 살려 박사과정 진학 준비 및 연구 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고 싶다.

김성라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교육학과

나는 조선 고교 재학 시 귀 단체의 장학금을 받았다. 내 고등학교 3년간은, 고교 무상화 제도의 시작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결과는 무참히 배신당한 그 시기와 마침 겹쳤다. 귀 단체의 장학금을 전액 학비에 대고 한번 포기했던 대학 진학도 이룰 수 있었다.

김미란

가나가와 조선 고급 학교 3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학과목을 통해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때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었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솔직히 고민이 많았다.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 전념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